

포도 신품종 '진옥' 판로 넓힌다

무주, 현장 평가회·간담회
포도시장 동향 등 공유
제 값 받는 소득농업 실현

무주군은 실천면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태관방)에서 포도 신품종 '진옥'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간담회 및 현장평가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와 청과업체 경매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 이 자리는 수입산 과일물량 증가에 대비한 유통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0여 명의 실천면 관내 포도농가들이 참여해 최근 포도시장 동향과 소비자 기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진옥' 재배포장을 비롯해 상품성 향상을 위한 재배법과 포장관리 등의 현장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포도재배 면적은 약 85ha로 대부분이 '캠벨엘리(이하 캠벨)' 품종으로 무주군은 이 품종의 착즙불량, 열과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옥' 품종을 30ha에 6.7ha에 지원한 바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이종철 소득작목 담당은 "진옥은 숙기가 캠벨보다



5~7일 정도 빠르고 당도가 높아 좋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라며 "군에서는 진옥의 인지도를 높여 안정적인 효과적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무주군 블루베리 연구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베리 수확 후 관리기술 현장평가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평가회는 블루베리 수확 후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수행해온 시험연구결과를 평가·농가에 접목하

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현장에서는 열띤 분위기가 조성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임병선 박사팀이 자체 개발한 유통패드를 블루베리 재배농가 저온저장시설에 활용해 진행한 연구결과 1개월 이상까지도 저장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날 실시한 대조구와 처리구에 대한 부패정도, 색, 맛, 식감 등 관능평가를 토대로 실증시험 연구를 확대해 기술보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이장원 연구개발 담당은 "이번 평가회가 수확 후 관리기술이 재배기술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됐을 것"이라며 "군에서는 앞으로 제 값 받는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력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농업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적상면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이희주 씨는 "블루베리 수확시기가 대부분 우기와 일치하고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며 "이번 평가회를 통해 수확과 선별, 저장, 건조 등 관리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 만큼 수확 후 관리기술의 도입과 접목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산림청 산불방지 우수마을 현판식

장수 장계면 삼봉리 남산마을 선정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남산마을이 산불방지 우수마을로 선정돼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에는 장계면장(이길재)을 비롯해 이장(양만용),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에서 개최됐다.

남산마을은 해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서'를 제출해 소각산불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 노력한 서약이행마을이다.

또한, 이장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동참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실천하고 노력한 끝에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길재 면장은 마을 주민에게 "농촌 지역의 산불예방을 위해 마



을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우리 마을 산불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뜻을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장수군은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지역에 알맞은 신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21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현장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현장교육은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 일원에서 이루어진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소득작목 발굴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농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과 아열대작물 시험재배 포장, 서부농업기술센터 선인장·감귤 재배포장 및 가공생산시설 견학할 계획이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역량을 강화해 장수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선도농업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마이파출소, 어르신 대상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예방 홍보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소장 최양환)는 20일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근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상가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에는 한번쯤 의심을 해보거나 받지 않을 것을 홍보했다.

또한 요즘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회관을 방문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에는 한번쯤 의심을 해보거나 받지 않을 것을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어르신들이 전화금융사기의 타깃이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말씀드려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마이산 김치 중국인 입맛잡기 나서

7톤가량 컨테이너 선적
해외 수출사업 적극 지원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마이산김치가 20일 중국수출을 위한 선적 및 기념행사를 부귀농협에서 갖고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항로 군수, 신갑수 군의장, 정종욱 부귀농협 조합장, aT 수출사업처식품수출부 황도연부장, 온대성 한복협 회장 및 수출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 수출은 김치 3종의 7톤가량(7,120kg)을 컨테이너에 선적했으며, 기념행사와 함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종욱 부귀농협 조합장은 "진안고원 김치 홍보에 초점을 맞춰 이번 수출을 진행한 만큼 진안고원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품질 김치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마이산김치가 20일 중국수출을 위한 선적 및 기념행사를 부귀농협에서 개최했다.

수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이번 수출을 통해 김치는 물론 진안고원 농특산물이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수출사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귀농협에서는 관내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김치 생산에 더욱 힘써 주시고 한복협에서도 중국시장 개척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50만원

진안, 소각 전면금지 집중 단속
산림 불 태우면 3년 이하 징역

진안군이 산불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조한 날씨에 지속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특별기동단속반을 산림청 기동단속과 연계 편성해 소각산불 단

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협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원인이고 농업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큼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일체 불 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선정 20억원 확보

무주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공모(시군 단독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서 무주군은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여가, 방문객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재창출한 구상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2019~2021)은 38억여 원이 투입되는 복합생활문화 기반시설로 무주읍 일원에 주차장(복합주차타워 및

친환경 옥외주차장 정비)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무주군청 건설교통과 조영자 도시개발 담당은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사업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인근 반딧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 만족도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더 나아가 지역체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꽃 의경 하계 야영 훈련

진안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최근 진안군 백운 섬진펜션에서 112타격대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야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경찰작전업무, 집회시위 경비, 미아·자살의심자 수색 등 각종 치안업무 보조에 고생하는 타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준비했다.

이번 하계야영훈련은 체육행사, 계곡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고 타격대원 상호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